

■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입니다.
2. 남선교회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4시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3. 리프트 : 리프트 이용 시 5인까지만 탑승 가능합니다. (휠체어 탑승 시 3인)
4.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은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신앙실천 : 오늘은 세계사막화방지의 날입니다. 절전과 절약을 생활화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요나 4:5~11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장원호	정원석	

6월	1부 영접위원	곽관희	헌금위원	이선영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정 정연희 한상경		
	2부 헌금위원	박범희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박준민 이경준 김정우		
다음주식당봉사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진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오  
묘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4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큰 이야기 앞에 인간이란 한낱 에피소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영원한 말씀에 잇대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는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노동이 한갓 욕망과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됨과 이웃 사랑의 거룩한 실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롬8:1-2 ..... 인도자  
 ▲ 교 독 문 ..... 84. 히브리서 11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신진식 목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447. 이 세상 끝날까지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막 4:26-34 ..... I. 인도자  
 ..... II. 김정훈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I. 강하고 담대하라 ..... 마중물 찬양대  
 ..... II. 예수 이름 높이세 ..... 청파 찬양대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권혁순 박혜경 김남종 오복순 김명하 오형일 김미숙 김성아 김영미  
 김영호 김예준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익한 김정훈 이진영 김종문  
 지명주 김준호 곽혜자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김혜라 김훈동 유경순  
 남윤경 문금석 박경애 박규석 박경선 박기원 이미영 박미희 박병구 박재영  
 이현정 박재우 정충원 박지혜 박해숙 변재민 이소혜 서동우 서수진 설규범  
 송병찬 송인선 송형운 하미림 심상숙 우경환 유금주 이경남 이광석 이경희  
 이순이 이우상 이계월 이재삼 전정현 이주영 오재영 임광호 장병준 박소현  
 장승희 정영례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조관행 홍선희 조두희 오연훈 조미선  
 최윤화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현진

### 감사헌금

강은주 강혜린 권정이 김금순 김반야 김진혁 신다현 김향자 노신후 류건형  
 이주은 박기원 이미영 박기태 박병구 김인순 박진주 변종복 오민용 유영남  
 윤선호 임선아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현희 정구봉  
 정확성 김현숙 최미선 최형서 황현성 이오복 유수진(아버지 수술)  
 무명7

###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배삼순 이인웅

### 녹색꿈헌금

김창숙 김은종 안현숙 우순덕 채일석

##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 즐거운 소음

- 고영민

아래층에서 못을 박는지

건물 전체가 울린다.

그 거대한 건물에 틈 하나를

만들기 위해

건물 모두가 제 자리를 내준다.

그 틈, 못에 거울 하나가 내걸린다면

봐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양보하면

사람 하나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저 한밤중의 소음을

나는 웃으면서 참는다.

말 씬	.....	조용히 자라는 하나님 나라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410.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바로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하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자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술처럼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작은 몸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큰 발자국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 등불 하나를 켜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참 행복 선언(산상수훈)’의 뒤를 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태5:13)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5:14)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그분 앞에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 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선언’의 결론에서 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로 미루어 생각할 때 결국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다면, 온유하다면, 만일 너희가 마음이 깨끗하다면, 자비롭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율법을 살짝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히브리 율법에서는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것과 하느님의 현존에 관계된 모든 것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계약의 상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빛을 예로부터 구세주 계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빛은 온갖 이교의 우상들을 쳐 이기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를 향해 새로운 사명을 받은 셈입니다. 그 사명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해지고 인류애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각기 다른 환경에 ‘맛’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처한 그 주변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그러하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는다면, 우리들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효과를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세상에 빛을 전해주는 이 사명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잘 간직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을 맛보아야지요, 보존해야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빛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빛이죠.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빛을 꺼 버린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셈이지요. 빛을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요? 등불 하나를 켜 것처럼 살고 싶나요? 아니면 끈 것처럼 살고 싶으니까요? 켜 거요? 끈 거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켄 것처럼요!”

여기서 잘 안 들려요. 어떻게 살고 싶다고요?

“등불을 켜 것처럼요!”

그래요 하느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나눠야지요. 등불을 켜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뒤틀림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가톨릭출판사) 중에서